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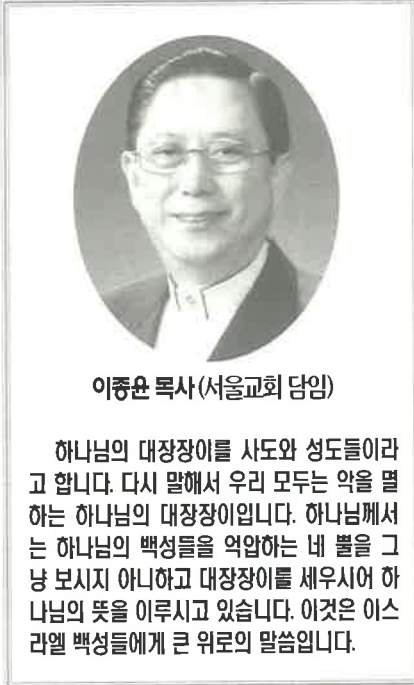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스가라의 비전 II

(스가라 1:18-21)

하나님의 종 스가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힘이 들터인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여호와 천사를 본 바로 그 자리에서 스가라가 본 또 다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을 잡게 하고 그들을 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어느 국가이든지 패망케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대장장이를 사도와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악을 멸하는 하나님의 대장장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네 뿔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대장장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1. 네 개의 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18절).

이스라엘 사회의 주산업은 농사와 목축업이었고, 그 중에 목축업이 더 성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주로 양을 키우는 데 이들에게 제일 두려운 존재는 뿔이 달린 맹수들이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고 긍지를 말합니다. 뿔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힘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또 뿔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날개 달린 사자 같은 것을 보았고 무섭고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열 개의 뿔이 있는 짐승을 보았습니다(단 7장). 열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단합된 나라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단 7:8).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단합된 나라들이 흥하고 패하던 모습들입니다. 다니엘 7:13의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인자’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심판을 예언하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다니엘 7장은 인자가 오실 때 뿔, 곧 자기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을 모두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네 개의 뿔이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홀뜨린 뿔이니라”(19절). 어떤 학자들은 홀뜨린 뿔이 스가라 선지자 시대의 이방 나라로 수리아, 앗시리아, 바벨론, 애굽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그 당시 뿐 아니라 미래 사건을 포함한 것으로 이스라엘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말한다며 네 뿔은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네 뿔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일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네 뿔의 시대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2. 네 명의 대장장이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20절).

여호와의 천사는 네 명의 대장장이를 네 개의 뿔들을 꺾기 위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학자들은 네 명의 대장장이를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네 뿔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후시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마리아가 이들과 관계가 있을지 모르나 수리아, 앗시리아, 바벨

론, 애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총칭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명의 대장장이 역시 상징적인 것으로 어떤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네 뿔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역사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내부에 있는 법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논쟁이 일어난 것도 교회 안에서 성직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종을 세우셨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에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참신이시고 참인간이시다’라는 진리를 위해 5번이나 투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므로 기독교를 이교주의로부터 완전히 돌리켜 반석 위에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이후 한 세기가 지난 후 기독교에는 또 다른 이단인 펠라기우스 사상이 만연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게 하여 완전한 기독교 교리로 정립을 시키므로 오늘날 기독교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매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들고 사용하시는 종들을 세우시며 그 종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원수들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쏘며 양들을 홀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능력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대장장으로 본 것입니다. 대장장은 히브리어로 ‘차라시’라고 읽습니다. 이 말은 돌이나 나무나 쇠를 다루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무기는 망치이고 하나님이 대장장이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마틴 루터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손에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렘 23:29).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광활한 마음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대장장을 사도와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악을 멸하는 하나님의 대장장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네 뿔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대장장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대장장들이 능력의 말씀에 붙잡히어 승리를 거둔 터이니 기쁨과 감사로 여생을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5시 교회에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킵시다

2004 홍해작전 시작되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 내일(7일)은 총동원 주일로 모여

우리나라에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감사를 잊어버려 온갖 썩는 내음이 진동하고 있는 지금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지탱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것이다.

이번 2004홍해작전을 통해 교회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우리교회가 기도로 달구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하여 새롭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국가를 세워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어 19일(토)까지 2주간 계속될 이번 홍해작전에 새벽을 가르고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군 복무중인 청년을 위한 중보기도와 2004년 세계기독교인대회 민박제공 가정 접수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해 군복무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비전 2020 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현재 우리 교인 중 군복무중인 청년들을 파악하여 본격적으로 중보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군 복무중인 청년들이 가정과 사회를 떠나 있는 동안 군 파송 준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부모와 형제 된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귀한 사명이다.

군복무중인 청년이 있는 가정은 이번엔 등록을 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자녀와 형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오늘까지 파악된 군복무 청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보호자)

강일선(강진환) 강진수(강한중) 노재균(노문환)

명노상(명인식) 박승기(박충구) 손운목(손병석) 송승섭(주효순) 송충엽(송재현) 안영석(안승검) 유영광(유근중) 음원석(음득근) 임만용(임선철) 조동현(조근환) 조충현(조근환) 장호진(장두현) 최광혁(최학인) 이상 16명이다.

한편 2004년 세계기독교인대회 참석자들을 위한 민박 제공 가정을 접수한다. 우리교회는 9월14일(화)~9월18일(토)까지 열리는 군인대회가 끝난 후 18일(토)~20일(월) 오전까지 3일간 민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19일(주)에 우리교회에서 손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교회에서 담당할 민박가정은 총10가정(2인 숙박 기준)이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교회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종강하다

목회자 신학세미나, 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 프로그램들이 지난 주간에 각각 종강했다.

10주간의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은 제가끔 영적 지적 수련의 기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12차 킷치 세미나도 때를 맞춰 지난 2일(수) 30

명이 수료함으로 서울교회는 명실공히 국내외 복음전도의 산실이 되었다.

수고한 강사들과 봉사자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란다.

홍해작전을 시작하며

호국의 달 6월과 홍 해작전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싸운 우리 선조들... 6월은 그들이 지켜 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후손들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부른다.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6월은 민족사회의 지나온 자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더욱 돌아보아야 할 소중한 시기이다. 우리 교회가 매년 6월이면 진행하는 홍해작전은 이 같은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현충일인 6월6일에 시작해 6월 25일 6.25사변 기념일까지 전개된다. 이 기간 동안 서울교회 전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합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정한 공동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고 깊은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진다.

'홍해작전'의 취지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 바로의 군대에 쫓기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주신 것이다. 그 모세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현재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는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서울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홍해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서울교회에 처음 온 성도들도, 또 그동안 홍해작전에 참석했던 성도들도 모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쓰며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교회는 촉구 하고 있다.

김민철(편집부)

찬양대 양성반 제5기생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리고자 찬양대 양성반(부장 박정선 장로)에서 훈련받은 제 5기생 17명이 오늘 찬양예배 시 수료식을 갖는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은 누구나 찬양대 양성반에서 훈련을 거친 후 각 찬양대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제 6기 찬양대 양성반은 오는 9월5일 주일 오후 1시30분에 601호실에서 개강할 예정이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5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문수 김미숙 김영숙 김중근 김혜령 배옥선 박찬주 여현진 유관모 윤준호 이광열 정찬주 조경희 조선진 주미영 최광성 홍정호 이상 17명

5월 새가족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5월중에 등록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강문희 강민호 강윤희 강재영 권애화 권은주 권정례 김경래 김경애 김계중 김동재 김동준 김미경 김민정 김보은 김상민 김상순 김상훈 김성금 김성태 김소연 김수환 김숙자 김순자 김영경 김영호 김영희 김용환 김용희 김용기 김은숙 김은우 김은정 김은혁 김재성 김재홍 김정곤 김주현 김준희 김혜영 남혜자 류기정 류지현 류형석 박경희 박봉순 박소연 박필순 석혜빈 성보현 성은지 송명숙 송정훈 송한나 신현기 신화선 심경숙 안현선 양지훈 양현성 양현진 오민서 오복연 오운서 오준기 유다연 유동연 유언지 유은철 유인선 유혜영 윤춘범 윤형중 이경희 이기범 이남경 이두나 이명진 이병도 이병철 이상호 이성직 이소란 이소진 이연진 이영희 이옥선 이옥심 이완목 이은조 이인복 이재운 이정은 이준영 이채연 이채원 이한나 이호식 임수빈 임은빈 임지선 장규숙 전연희 정민철 정수라 정순구 정우람 정은영 정재영 정중환 정지환 정형섭 정희진 조경희 조민수 조민재 조혜은 지광선 차정영 채승호 채유정 채 정 최 나 최성희 최영수 최정운 최준영 최지혜 최혜규 하보련 하승희 한경심 한미은 한선현 한성재 허경원 허승준 허 용 허인준 허태웅 허화영 홍다혜 홍정아 황사현 황수림 황아진 Gregory R. Ritzke, Mai Sorensen 이상 148명

<다락방장 변경>

11-9 다락방: 서경숙 집사

11-12 다락방: 오성에 집사

<금주의 성구>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의게 속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렘 4:4)

Circumcise yourselves to the LORD, circumcise your hearts, you men of Judah and people of Jerusalem, or my wrath will break out and burn like fire because of the evil you have done--burn with no one to quench it. (Jeremiah 4:4 [NIV])

만민에게 전도 - KIMCHI 세미나를 마치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서울교회!



<캄보디아>

세미나 기간 동안 교회성장에 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나의 정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강의에서 교회가 성장 하는 방법에 관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KIMCHI 신학 세미나는 나를 향상 시키고 나의 목회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미나는 배우고, 성령을 경험하고, 한국 교회와 많은 관계를 갖게 하고 국가 대 국가 사이의 친교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김치 세미나는 모국에서 최상의 선교 전략을 많이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

<라오스>

우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들의 강의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강의는 학문적인 강연이었고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과 사고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즐겁게 드렸고 매일 아침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 Nehemiah 지도자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논의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다락방에서 가졌던 경험들도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어떻게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미얀마

김치 세미나의 자료들은 내가 목회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오후 프로그램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



<베트남>

베트남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깊게 체험한 것은 귀중한 시간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교회도 우리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독교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목 사님, 한국의 기독교 학자들, 서울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국>

- 제12차 KIMCHI 신학 세미나,
 - Knowledge(지식) - 한국교회 성장의 역사와 우수한 강사들의 주제들
 - Insight(통찰력) - 교회 성장의 비밀, 우수한 지도자들과 참된 기독교인들의 선발, 다락방을 시작한 방법 등
 - Meaningful experiences(뜻있는 체험) - 여러 흥미 있는 장소 방문의 기회, 예를 들면 타 교회 방문, 장신대, 연세대학교, 다락방 등
 - Courtesy(예의) -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 해 주고 후원 해준 KIMCHI 신학 세미나 위원들의 사랑
 - Hospitality(환대) -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들, 집사들과 교인들의 관대하고 겸손한 봉사
 - International networking(국제적인 네트워크) - 보다 큰 선교 비전으로서 한국과 인도차이나에 있는 교회들과 나눔과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가별 전략회의 결과-

<캄보디아>

1. 김치 참가자들은 일 년에 4번 모여서
 - 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 ② 문제점과 성취한 부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 ③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고
 - ④ 우리의 문제를 체크할 것입니다.
2.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훈련을 위해서
 - ① 다락방과 소조직을 활성화 하고
 - ② 교회의 씨를 뿌리고
 - ③ 다락방 리더를 양육하겠습니다.
3.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 주일학교 선생을 양육하겠습니다.
5. 성도들의 전도(선교)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① 세계를 위해 특별히 불신자를 위해
 - ② 군부대에 복음을 전하고
 - ③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 ④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타일랜드>

타일랜드의 개혁교회는 함께 vision 2010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vision 2010 운동은 2010년까지 모든 주에 하나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구마다 기독교 그룹이 생겨나고, 모든 마을 주민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AM PM (Appoint, Church Map Make, Provide, Mobilize)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미얀마>

미얀마의 국가전략은 '능력 선교활동'입니다. 불교도인 국민이 병 들거나 귀신 들렸을 때 인수 기도하여 낫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자세히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교학교가 필요하고 성경 가르침과 일치하는 서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교가정의 어린이와 기독교 가정의 어린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사가 필요합니다. 교복과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오스>

1. 심령을 재생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2. 교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친밀한 모임으로 만들고 새신자를 잘 이끌 수 있게
3. 교계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영적부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두 번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들과 핵심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한 번은 젊은이들에게입니다.

<베트남>

1.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김치세미나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모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이 도전을 받고 그들의 영적 생활에 용기를 주고 예수 안에서 친밀하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2.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기도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3. 일주일에 한번,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끼리 만나 서로 같이 기도하는 기도회를 만들겠습니다.
4. 내일의 교회 성장을 이끌 교회 일꾼을 기를 훈련과정을 만들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이단연구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

요즘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이에 대한 법관의 판결로 인해 이들의 정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순례자는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면서도 이를 미화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실체를 본지에 실는다.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 시한부 종말론자 밀러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토착종교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 뉴욕 부르크클린에 세계통치체 본부를 두고 있는 신권 왕국 집단이다.

이들의 세계통치체 본부 아래 전 세계 각 나라에 210여 개국의 지부통치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최고 간부진으로 구성된 이 통치체만이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조직이고, 그 외의 국가, 문화, 종교, 사회의 모든 조직은 모두 사탄의 조직으로 타도의 대상이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거나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기피하는 것은 현실의 국가 조직을 사탄의 조직으로

로 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털어 멸망 받을 '큰 바벨론'이라 하고, 목사나 전도사 등 기독교의 교역자는 '음녀'이며, 모든 국가나 정권 담당자는 '짐승'이라고 부르며, 구원받을 후사 14만 4천이 차면 홀연히 아바겟돈이라는 큰 환난이 일어나 그들 음녀와 짐승들을 멸망시키고, 곧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 지는데 그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로부터 통치권을 받아 군왕이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집회소도 '왕국회관'이다. 그러므로 신도들에게 멸망해 없어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없애고 영원토록 존속할 신권 왕국 통치권에 일련단심 헌신하도록 현재의 명예도, 재산도, 가정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안중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끔 세뇌 시켜놓는 기독교 이단이다.

부부다락방을 찾아서

폭 폭 익어가는 신앙의 샘터

권익순 집사(12교구 11다락방)

정들 2교구를 떠나 수지로 이사하기로 했을 때 교회 가까이 아닌 더 먼 곳이어서 마음의 걸림들이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으나 소문난 다락방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다락방 모임, 총인원 27명,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부가 함께 모이는 열심과 정성이 놀랍지만 했습니다. 이사 온 지 2개월 마치 오래 전부터 만나왔던 사람들 처럼 정겨워진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중보기도가 풍성했고 각 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결고리가 끈끈했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모태 신앙인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미련했던 나를 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사람 한사람 기도해주시며 열심히 말씀 전하시는 빈틈없고 사랑 많으신 김광신 장로님. 넉넉한 대접의 기수가 되시는 권사님. 70인 전도대 때문에 맘 홀리는 권사님. 성경10독을

지나 20독을 향해 뛰시는 집사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식구들. 이 모두가 우리에게겐 믿음의 본보기요 또한 도전이 됩니다.

봄별 좋은 날 영중도로 다락방 야외회를 다녀오면서 가족처럼 뜨겁고 가까운 사이를 만들어가는 지혜와 열심에 박수를 쳤습니다. 지난 번 다락방 모임에서 먹었던 1년 묵은 김치 맛처럼 아니 다락방 식구들이 맛보았다는 3년 묵은 이백 김치의 깊은 맛처럼 수지 다락방은 폭 폭 익어가는 신앙의 샘터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구 찬양대회 준비 열기 드높아

6월18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려

갑자기 찾아와 30도를 오르내리는 한 여름의 더위와 더불어 교구 찬양대회 준비의 열기가 드높아지고 있다.

교회 계획에 따라 조용히 찬양대회를 준비하던 각교구에서는 지난 5월23일자 순례자 2면에 교구찬양대회 시작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후 발걸음이 바빠져 자기 교구에서 반주를 담당할 이를 선정하고 또한 지휘를 맡을 이를 찾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교구찬양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눈에 띄는 것은 많은 교구식구들이 바쁜 일을 잠시 체쳐두고 미소를 띄며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정곡과 더불어 자유곡을 한 곡 부르게 되어있어 자신이 속한 교구에서 준비한 자유곡이 다른 교구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다니는 등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교구위원회는 이번 대회 심사기준을 참여도를 50%로 하고 전체교구인원대비 참가인원으로 참여도를 계산하기로 하여 교구간사들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여졌다.

또한 이 날 사랑상을 수상하게 되는 교구는 6월20일(주)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

모든 교구 식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하며 찬양을 드리게 될 6월18일은 큰 은혜의 날이며 잔칫날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교구찬양대회 지정곡은 찬송가 382장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0일(목)에 13차 김치 세미나를 위한 준비로 화란의 비크 교수를 만나 회담한다.
- 수상: 중등부 과학승 5/29 음악교육신문사주최 콩쿨 관악부(플룻) 1등
- 특납: 유사라 양진원 성도 가정(샌프란시스코) 6월2일 특납
- 이사: 진교속 집사(13교구) 도곡동 193-23 신성빌라 A-402 576-2858
김성은 집사(13교구) 대치동 은마@22-1301
- 주간 식당봉사: 모세남선교회(6월6일) 도르카여전도회(6월13일)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 참여하여 승전할 수 있도록
2. 교구별 찬양대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